

마크 제닝스 박사, 마가복음 23강, 마가복음 15:1-32, 빌라도, 수난, 십자가 처형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마가복음 15:1-32, 빌라도, 수난, 십자가 처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연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인데, 마지막 전체 장입니다. 그런 다음 마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 처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도착하면 16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14장에서 유대인 공의회와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십자가 처형 자체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물론 15장의 앞부분에는 빌라도 앞에서의 심문이 나옵니다. 이제 마가는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 심문에 대한 가장 적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마가 복음서에서 이 특정 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의 무죄에 대해 불안해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마가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서 갈릴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과 달리 빌라도와 예수 사이의 그 교환, 긴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간략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강력한 역사적 확실성 중 하나, 사실 고대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확실성 중 하나가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에서 빌라도의 역할을 언급하는 다른 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으며, 빌라도와 마가 앞에 있는 설명조차도 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역사성에 대해 거의 논쟁이 없지만 복음서 자체에 묘사된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가 예수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의 구조를 약간 만들어냈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마가의 역사성에 대한 주장이 두 가지 설명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 아는 것이 복음서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 말은, 필로를 볼 때, 요세푸스를 볼 때, 빌라도에 대한 다른 기록을 볼 때, 그가 매우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인구를 화나게 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종종 유대인 지도부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대해 편안해했습니다. 사실, 그는 복음서 밖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과 로마 기준과 관련된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저지른 적이 두 번 있었고, 신에게만 경의를 표해야 할 곳에 로마 신을 모독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로마에 대한 항의를 포함하여 상당한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부에 대해 매우 기꺼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들에 맞서는 데 매우 기꺼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열함, 그의 잔인한 성격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를 보고, 예수를 내리려고 거의 애쓰는 빌라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애쓰는

빌라도, 군중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간청하는 빌라도를 보면, 그것은 완전히 그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역사적으로 바라바의 석방입니다. 이제 마가 복음에서 읽을 수 있듯이 바라바의 석방은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지만, 마가는 당시 빌라도가 유월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그것이 관례였는지, 예상되었는지, 또는 반복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를 많이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라바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면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은 예상된 현실이었고, 그래서 도전 중 하나는 어떻게 빌라도가 매우 잔인해 보이는 통치자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행복하고, 심지어 유대인 군중에게 행복하고, 죄수를 석방함으로써 일종의 자비로운 행위를 제정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것이 교회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가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바라바의 석방에 대한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몇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이 될 겁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의 역사성을 말해주는 것 중 하나는 바라바가 네 복음서에 모두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나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복음서 기자나 교회가 바라바라는 인물에 대한 전통을 발전시켜 삽입했을까요? 특히 이것이 관습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요? 마가가 사건과 상당히 가까운 시기에 쓰여졌다면, 그가 관습이나 전통을 따랐다고 말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특히 마가가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그 교회는 아마도 이러한 다른 통치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예를 들어 통치자, 특히 정복군이나 점령군, 또는 약간의 불안을 겪고 있는 왕이 포로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하세요.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언급을 보고, 심지어 1세기와 그 후 2세기에 도 미슈나에서 왕이나 통치자가 그에게 어떤 종류의 불안이나 불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포로를 풀어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관습이었거나 그의 관습이었던 것처럼 느끼는 것도 수십 년 동안 굳건한 관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 최근에 발전한 것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빌라도가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월절에 그것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됩니다. 만약 어떤 종류의 속박을 풀어주는 축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의 역사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더라도 빌라도의 잔인함, 빌라도가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선 사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충돌을 겪었고, 우리는 여러 번, 두세 번, 그들이 그의 상관들에게까지 불평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현재 총독 자리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를 임명한 사람, 역사에 따르면 강력한 반유대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리가 매우 불확실했고, 이것이 서기 30년인지 33년인지에 따라 당시 권력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늦었다면 실제로 통치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그림을 쉽게 볼 수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유대인 통치자가 있고, 우리가 아는 어떤 유대인들은 어느 때 황제에게 가서 빌라도의 통치에 대한 불평을 표명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부에 대한 그의 처우에 대해 질책을 받거나 꾸지람을 듣고 약간 불안해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관행을 도입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이상 불안이 없도록 하거나, 그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불평이 없도록 하기를 훨씬 더 원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과거의 잔인함이 지금 그가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저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많은 호의를 얻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나 필로를 보든,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것과 복음서에서 보는 것은 실제로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만들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그가 어떻게 온유하고 사려 깊은 영혼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이용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전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이 수난극에서 어떻게 온유한 배우였는지 생각하기 전에, 그 점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전체 칭호입니다. 대화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예수가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초기 교회가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창작물이었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칭호, 심지어 메시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은 이 메시아 인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이해하기 쉬운 로마식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서 유대인의 왕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그것의 역사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후대 교회가 유대인의 왕을 사용하여 이야기에 삽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정성을 약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예수 자신이 메시아적 주장을 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든 예수와 이 메시아적 인물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고, 유대인의 왕이 그가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글썬요, 시작해 봅시다. 마가복음 1장의 처음 15절,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의회와 협의하여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를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답할 것이 없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고소를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으므로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이제 그는 명절 때 그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반역자들 가운데 살인과 폭동을 저지른 사람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와서 빌라도에게 평소에 그들에게 하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이 그를 시기하여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풀어 주었고, 대신 바라바를 주어 풀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다시 물려나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는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더욱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고자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구절을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산헤드린은 예수를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권한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로마가 지역 주민들이 판결과 판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만 사형은 보류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보통 사형을 지방 기관이 내릴 수 있는 판결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예수를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실행 가능한 방법, 즉 빌라도에게 가져갈 수 있는 혐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현재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요새와 궁전이 있는 카이사레아 마리티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 동안, 특히 예루살렘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보통 헤롯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머물렀던 곳은 즉시 황궁, 구역, 프라이토리움 등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새에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는 아마도 헤롯 궁전에 머물렀을 겁니다.

빌라도가 거기에 있는 방식으로 위치 타이틀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하는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무엇이든, 그 비행기의 호출 부호는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이라고 불리는 제트기가 있고, 대통령을 위한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제트기이기 때문에 에어포스 원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제트기를 내려서, 그냥 여객기로 가자고 하면, 그 여객기의 호출 부호는 에어포스원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에어포스원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거죠.

빌라도가 가는 궁전은 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로마인의 존재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교적 빨리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그들에게 데려갔는데, 우연히도, 당신이 주목한다면, 이것은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예수님이 받은 수난 예언입니다.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이지만, 또한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를 많은 것들로 고소하기 시작했고, 빌라도는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4절에 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매우 아름답고 미묘한 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난에 대해 침묵을 지키셨고, 산헤드린 앞에서 대부분의 비난에 대해 침묵을 지키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이 유대인의 법을 어긴다는 본질보다는 로마에 대한 본질에 더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빌라도에게 제기하는 이러한 비난은 그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 반란, 평화의 교란, 그러한 본질의 폭동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버나움에서의 첫날과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그가 치유를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심지어 그의 설교, 말씀, 가르침을 행했을 때, 우리는 군중이 놀랐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군중은 그가 행한 가르침과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군중은 그가 말씀하시는 데 놀랐고 악마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바람과 물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 분은 누구신가? 그들은 진정되고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실제 말씀이 놀라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침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침묵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말하는 것과 쉽게 연관시키는

권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말하는 것과 쉽게 연관시키는 놀라움은 그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제공됩니다.

저는 5절의 이 순간이 그 자체로 기적과 유사한 순간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치 예수께서 대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에게 묻습니다. 물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신가요? 그리고 예수의 대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물었을 때, 예수는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약간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이 아니지만, 조건부 예스인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긍정의 진술만큼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는 말로 예라고 말하고, 권능과 권위로 예라고 말하지만, 빌라도가 의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마도 단어적으로는 예스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아니오일 겁니다. 아마도 그게 답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부분을 살펴보고, 빌라도가, 아시다시피, 놀랐던 그는 이제 유월절 때문에 예수를 풀어줄 기회를 보고 군중에게 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죄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동기가 그가 9절에서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동기는 그가 대제사장이 그를 넘겨준 것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평가는 그가 실제로 군중이 예수를 포로로 잡아두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감지하는 질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질투하는 질투이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질투하는 질투이며, 빌라도가 예수를 이 석방의 옵션으로 제시한 사실 자체가 그가 예수를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반란 혐의, 혁명을 일으킨 혐의, 카이사르에 대한 폭동 혐의, 심지어 평화를 크게 교란한 혐의조차도 그가 위협으로 모은 것이 아니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수치를 제시했을까요? 빌라도는 아마도 그가 석방한 사람들에게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실제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시도할 사람을 석방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건 완전히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선택권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은 그가 풀어주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는 예수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그를 대적할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투와 시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군중에게 소개하고,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말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는 아마도 그들이 예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원할 것이고, 당신이 빌라도라면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당신이 고발을 듣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또한 리더십의 코를 약간 꼬집고 군중을 당신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상관들 앞에 서서, 내가 한 일은 군중이 화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야기는 바뀌는데, 대제사장이 군중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가 살인을 포함한 반란과 관련하여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또는 살인이 저질러진

작전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그리스어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일로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선동은 군중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린치 폭도처럼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선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일 중 하나는 빌라도가 군중에 대해 굴복하도록 압력을 가할 장면을 만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원치 않고 바라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12절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여기 유대인들의 반응, 군중의 반응을 정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물었기 때문이고, 하지만 좋아요, 바라바를 원하신다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화를 원하는 듯합니다. 왜? 그는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하지만 토론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15절에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고자 동의합니다. 군중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헤롯을 떠올려 보세요. 헤롯은 갑자기 자신이 만든 세례자 요한과 함께 갇힌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순수함과 거룩함에는 헤롯이 끌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웅장한 배경을 만들고 자신을 묶고 덮에 걸리는 맹세를 합니다. 저녁 파티 손님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세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함정과 자신의 영리함으로 예수를 풀어주고 군중을 이용해 그렇게 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중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편을 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따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는 군중에게 굴복할 것인가? 그는 군중에게 굴복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데, 군중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체포하는 데 주저했던 바로 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중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를 체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적인 장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중은 실제로 지금 공공 영역에서 행동을 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군중이 매우 변덕스러운 무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실제로는 결코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처음 일곱, 여덟 장에서 본 특징 중 하나였고, 군중은 항상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중은 십자가 처형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득과 사회적 평화를 위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질투해서 그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의하고 그를 넘깁니다.

그는 바라바를 구제합니다. 그는 예수를 채찍질하게 했는데, 이는 채찍질 과정이었을 것이고, 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론 16절과 그에 이르는 과정, 16절에서 32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6 절의 작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궁전으로 끌고 갔는데, 궁전은 총독의 본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대대 전체를 불러 모아 그에게 보라색 망토를 입히고 가시관을 꼬아서 씌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보라색 망토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힌 후, 그를 끌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 16절에서 20절까지는 대관식의 조롱입니다.

황제의 승전 퍼레이드나 새로운 황제의 취임식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는데, 물론 지금은 조롱조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보라색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물론 보라색은 왕족의 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월계관을 걸었는데, 가시로 만든 월계관이었습니다. 카이사르, 황제를 찬양하는 외침 대신, 특히 퍼레이드나 승전 행렬에서 카이사르가 들어올 때 흔히 하는 외침 대신, 카이사르, 황제를 찬양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을 찬양합니다.

갈대를 두드리는 것, 마태가 이 그림을 통해 생각하려고 할 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갈대는 그들이 그를 잡고 있던 홀이었고, 지금은 그를 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것은 완전한 경멸과 모욕입니다. 군인들의 언어를 주목하세요.

그들은 그를 이 왕의 그림, 즉 대관식으로 차려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를 계속 때리고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우연히도 그것은 실현된 수난 예언, 세 번째 수난 예언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온 고난받는 종의 모티브를 보면, 그것이 어떻게 현재화되어 있는지, 이사야 56:7은 지속적인 모욕과 지속적인 침 뱉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마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주어지지 않고, 사방에서 모욕이 쏟아집니다. 저는 마가복음 15장을 더 읽어가면서, 모욕인지 위로인지 궁금해지는 몇 가지 사건을 알아차릴 때 그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마가는 그것을 모욕으로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제시하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 개인적인 위로를 얻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때리고 조롱하고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 후에, 당신은 그 냉소와 비방과 비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매우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일어납니다.

로마는 십자가 처형 방법을 메시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혈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질식사, 즉 숨 쉴 수 없는 상태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너무 약해져서 숨을 쉬려면 가슴을 부풀리기 위해 몸을 끌어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굶어 죽거나 탈수증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 과정이었고, 보통 그 과정에서 새와 들개 무리, 짐승에게 잡아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로마가 그들에게 맞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만큼이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사형이 단순히 심판이라면, 누군가를 죽이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면, 당신은 덜 부끄러운 죽음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매우 부끄러운 위치였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력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종종 벌거벗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위치와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물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를 들어 고린도인들에게 말할 때, 그는 존경받는 것과 부끄러운 것 사이의 강조점을 끌어내고 고린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인 부끄러움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수직 빔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이런 공공 장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형수로서 십자가의 수평 부분을 그 위치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퍼레이드 또는 당신의 지점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당신은 수직 들보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1절을 살펴보고, 그들은 시골에서 오는 지나가는 사람인 알렉산더와 루푸스의 아버지인 키레네의 시몬에게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참고 자료입니다. 매우 간략한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역사성은, 그러나, 언급되고 이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이름이 세 개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Simon이 있지만, 그의 두 아들 Alexander와 Rufus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아들의 이름은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 이름에 의미가 없다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시몬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기억된 순간의 역사성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역사성과 목격자 증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인물의 중요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측 중 하나는 마가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로마서 16:13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루푸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퍼스에 대한 이 언급이 어떻게 로마의 루퍼스와 관련이 있는지, 심지어 같은 인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누군가를 징집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사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첫째, 그것은 물론 누군가에게 이것을 하게 하는 로마의 권위를 말하지만, 또한 지금은 예수의 신체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구타당했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기억하세요, 그는 몇 시간 동안 어떤 종류의 심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도, 산헤드린에서 로마인들에게서였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의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의 십자가를 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로마는 그들의 희생자들이 의식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도중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이유, 즉 정부의 고통과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 그 자체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징집하여 골고다 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는 두개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왜 이곳을 갈보리라고 부르는지 궁금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위대한 찬송가가 갈보리로 언급되고, 저는 항상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골고다인데, 그것은 두개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두개골의 위치를 라틴어로 쓰면 갈보리라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두개골의 위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가 이 위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개골이 있는 곳으로 갔고, 이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두개골의 장소라고 불리나요? 멀리서 언덕 자체가 두개골처럼 보이기 때문일까요? 불길한 죽음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옵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확히 어디에 있든, 그리고 몇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도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는 두개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주었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이들은 그를 여기로 데려오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몰약을 섞은 이 포도주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진정제인가? 감각을 둔화시키는 진정제인가? 아니면 쓴맛이 나는, 정말 정말 맛이 나지 않는 뭔가인가? 만약 전자라면, 일종의 위안입니다.

후자라면, 그것은 모욕의 일각일 뿐입니다. 마크가 군인들을 묘사한 방식 때문에, 진정제나 위안을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실제로 괴로움을 주는 사람으로, 모욕의 추가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남자의 지친 상태, 탈수, 약함의 감각을 이용하면, 거의 무엇이든 마시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서 쓴맛이 나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더 조롱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데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그의 금식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제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가 둔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고통의 완전한 경험을 느끼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여전히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 , 비록 그가 지쳐 있지만, 예수는 그것에 '아니오' 라고 말할 정신적 능력과 의지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아니오' 라고 말하세요, 아마도 그가 육체적으로 원했을 때조차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하고,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주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그들 사이에 나누어 제비를 뽑아 각자가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제삼시였습니다.

물론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것은 여기서 조금 후에 등장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시편과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알몸의 수치심을 표현한 제스처로 인해, 그냥 주변에 어떤 종류의 천을 두른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옷은 다시 한번, 여전히 분명히 빼앗겼고, 종종 군인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가서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대략 오전 9시경이 아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시간일 겁니다.

시간은 약간 유동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적어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세 번째 시간, 오전 9시,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분을 염두에 둡니다.

이것은 9시 시간대에 의해 지배되는 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섹션이라면요. 그러니까, 3시 시간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전 9시와 다음 3시 블록 사이 어디든 될 수 있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6시였을 겁니다. 제 말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 말은,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오전 중반이지 새벽이 아니에요.

흥미로운 점은, 여기 마지막 코멘트인데, 마가가 십자가 처형의 실제 행위에 대해 얼마나 적게 말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조롱, 침 뱉음, 망토, 가시, 제비 뽑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 자체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은 많은 고대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니다. 사실, 우리의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곳에서보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철학자와 교사들은 종종 그것을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알려지고 이해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저는 그것이 그 사건의 주제가 그 순간의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고통의 종으로서, 속죄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피와 고통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을 다루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마가복음 15:1-32, 빌라도, 수난, 십자가 처형입니다.